

## ‘평생학습 새 삶을 두드리다’ 수기 공모전

부문	비학위과정	성명	신정보
제 목	평생학습으로 거둔 한국어교육 자원봉사활동의 보람과 기쁨		

### “아이고,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 제”

벚꽃이 봄바람에 눈꽃처럼 흩날렸다. 텃밭에서는 겨울을 이겨낸 마늘 새싹이 뽀족뽀족 고개를 들었다. 길옆 빈터에 덩그러니 누워있던 경운기가 농부의 손을 잡고 기지개를 켜다. 돌담 너머 만개한 매화꽃이 장독 위에 향기를 내뿜었다.

장수의 한 시골 마을로 들어서서 고샅길을 돌아가려던 순간이었다. 난데없는 경찰차가 허름한 기와집 대문 앞에 갑자기 멈췄다. 위급한 환자가 발 생했거나 필시 무슨 사건이 일어난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병석에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모시며 11년간 간호한 며느리 한 분을 취재하려던 참이었다. 일단 경찰한테 ‘실버 기자 증’을 내보이고 사건의 자초지종을 알아봤다. 베트남 아내에 대한 남편의 가정폭력 사건이었다. 대문 밖에서 귀를 기울이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피해여성은 훌쩍거리며 경찰이 묻는 말에도 묵묵부답이었다.

### “아이고,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제”

나이가 지긋한 이웃집 할머니가 끌끌 혀를 찼다. 결혼 3개월째라고 했다. 심성도 고운 여잔데 며칠 동안을 두들겨 패니 잘 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 신고했다고 했다. 남편은 자기가 일하러 간 사이에 그의 아내가 베트남 결혼 중개인과 전화를 해서 출국을 모의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국제 사기결혼이 사회문제로 크게 떠오르던 때였다. 당시 나는 퇴직 후 노인일자리의 하나로 전주금암 노인복지관 ‘전북실버뉴스레터’ 실버 기자와 편집장을 겸하고 있었다.

문득 해외여행에서 현지 언어를 몰라 어려움을 당했던 일들이 떠올랐다. 친척을 만나 술을 마신 후 배가 아파서 병원을 찾고, 의사에게 ‘술 먹고 배가 아프다’는 일본말을 몰라 ‘주복통(酒腹痛)’이라고 한자로 써주었던 일, 프랑스 공항에서 잃어버린 가방을 찾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묻던 일 등 가지가지로 고생했던 일이 줄을 이었다.

며칠 동안의 여행에서도 현지 어를 몰라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결혼 이주여성들은 한국에 시집와서 한국 사람으로 일생을 보낼 사람들이 아닌가! 그들에게 한국어로 자유롭게 의사 소통하는 것만큼 절실한 소망이 또 있을까?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인내하며, 의사소통이 안 되어 자기의 권리주장도 하지 못하고 인권을 무시당하며 죄를 뒤집어 쓰는 다문화 여성들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생각하니 집에 도착해서도 답답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었다.

이집트엔 숨을 거둔 사람이 천상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염라대왕의 질문에 잘 대답해야 천국으로 간다는 전설이 있다고 한다.

‘당신은 평소에 행복한 일이 있었느냐? 당신은 평소에 다른 사람을 행복 하게 한 일이 있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에 모두 “네” 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노후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던 내가 아니었던가!

‘그렇다.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말로서 자유를 누리고 말로서 인권을 존중받고 말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장서자! 이 일이 나를 쓸모 있고 행복한 사람으로堂堂하게 세워주는 또 하나의 버팀목이 될 것이다.’

내가 선택한 이 자원봉사활동이 42년 동안 교육자의 삶을 누리게 해준 국가에 대한 보답이라고도 생각했다.

###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을 위해 배우며 준비하며**

나는 바로 다문화 결혼이주 여성들의 한국어교육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다. 전주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어교사’ 정식명칭은 ‘한국어마을학당교사(자원봉사자)’였다. 채용자격과 조건은 ‘한국어교육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전직교사,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 이민자, 한국어교육 60시간 이상 경력자’ 중 한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었다. 나는 전직 초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바로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내외 외국인이나 재외 동포 등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육은 국어교육과는 교육의 목적과 대상, 방법과 기술 등 다른 점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기로 결정했다. 권위와 명성을 자랑하는 서울대학 교수님들로부터 강의를 듣는 다는 것 하나만 해도 나에게겐 축복이고 자랑이었다. 다만 낮 동안은 매일 하는 일이 있으므로 사이버교육 과정이 필요했다. 서울대학교 평생교

육원 전문분야 '온라인 한국어교원양성 과정(2기)'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했다.

2011년 5월16일부터 8월2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온라인 과정 108시간, 교육실습 20시간  
합계 128시간의 과정을 이수했다. 교재는 '서울대학교 온라인 한국어교원양성과정 (1,2,4영  
역)'과 '(3영역)'(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언어교육원, 한국어문학연구소, 국어교육연구소 지음)  
두 권이었다. 국내 여러 대학에서 한국어학과 학위과정도 운영하고 있었으나 경제적, 시간적  
여가 없는 나는 비 학위 과정을 선택했다. 교육과정은 모두 5개영역으로 1영역은 한국어학,  
한국어사, 한국어문 규정이었고, 2영역은 언어학으로 사 회, 대조언어학, 외국어습득론이었다.  
3영역은 한국어교육과 평가론, 교 재와 교안작성으로 이수과목과 배당시간이 가장 많았다.  
4영역은 한국문학 론과 전통문화, 5영역은 교육실습으로 수업참관과 모의수업, 교구제작의  
과목이 배정되었다. 온라인 강의는 1주에 10시간 이상 시청해야 했다. 이 수 기준은 이론  
강의 진도 율 85% 이상, 실습강의 진도 율 100%, 실습과제 (지도안 작성 및 모의수업) 점수  
60점 이상, 온라인 종합시험 점수 70점 이 상이었다.

나는 현직 교사로 근무할 때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 3학년에 편입학 하여 방송강의를  
듣고 공부한 경험을 상기시켰다. 국어교육을 제2의 전공으로 배우고 실천한 경험과 노하우  
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적이 자신감도 생겼다. 그 때 학습효과를 보았던 고공학습법을 이  
번에도 적용하기로 했 다. 하나하나의 지식 조각보다는 책 전체의 내용을 꿰뚫는 법칙을 찾  
아 정 리하는 방법이다. 전체를 먼저 보고 부분을 보며 전체와 부분, 부분과 부 부분의 상관관  
계를 정리하는 학습법이다. (원동연의 고공학습법 참조함) 이 학 습을 위해 만든 표가 바로  
고공표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책 또는 단원의 내용 또는 지식을 전체로 엮은 표를  
말한다.

고공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만들었다. 한국어교육양성과정 영역별로 한 페이지 씩 만  
들었다. 큰 지식부터 작은 지식으로, 성근 지식으로부터 촘촘한 지식 순서로 정리했다. 표와  
그림을 사용하여 전체를 통합적으로 보면서 작은 부분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도록 만들었  
다.

이 표를 온라인 강좌 시작 전은 물론이고 예습과 복습할 때에도 서브노트 위에 올려놓고  
시작하고 정리했다. 온라인강좌를 시청하는 경우에도 몇 가지 나만의 원칙을 세워 실천했다.  
첫째, 낮에는 강의, 결혼 주례, 부진학생 지도, 청소년 인성교육, 노인 및 청소년 상담 등 밖  
에서 일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시청시간을 밤 7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로 정했다. 둘째, 강  
좌 시청 전엔 반드시 예습을 하고 시청 후에는 간단히 복습을 했다. 셋째, 한 강좌가 끝날  
때마다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뽑아서 시험문제를 만들어 보거나 다문화 가족 현장수업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아이디어를 생각 하고 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은 현직에 있을 때 공부한 초등국어 교육론과 비교하면서 공부했다. 한국어 언어기능신장을 위한 교육방법을 좀 더 일찍 공부해서 이를 초등교육에 적용했더라면 더욱 큰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어 어문 규정을 이해하고 일상 생활에서 바르게 활용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한국 사람인 나도 더욱이 초등교육과 국어교육을 전공한 국어 교사도 어렵 게 느껴지는데 외국인들이야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았다. 이 강좌를 시청하면서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어문규정을 알기 쉽게 가르칠 수 있을 까 깊이 고민해 봐야겠다고 다짐했다.

그 해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다. 관악산 숲을 뚫고 나온 햇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다.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제5영역 교육실습을 하는 날이었다. 동서네 집에서 하룻밤을 묵은 나와 아내는 구경삼아 동승한 동서 내외와 함께 서울대학교 교문을 들어섰다.

“나도 서울대학교 학생이야.”

거드름을 피우며 뽐내는 나를 보다 못한 아내는 ‘무시험 무 학년 무졸업장’ 서울대생이라고 핀잔을 놓아 차 안이 떠나가게 한바탕 웃었다.

나는 교육대학 교생실습생처럼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실습교실에 들어 갔다. 교장 정년 퇴직한 지 9년째 되는 해였다. 예정시간이 30분이나 남았 는데 교실이 가득 찬 느낌이었다. 미리 준비한 실습생들의 모의 수업이 진행되었다. 수십 년 수업을 했던 나도 몹시 떨렸다. 나는 일흔 살이고 나 다음 나이가 많은 사람은 55살이었다. 우리 반 25명 정원 중 내가 최고령 자였다. 남자는 4명뿐. 몇몇 실습생들은 내가 사립유치원 원장님 인줄 알았다고 해서 나도 계면쩍게 웃었다.

나의 실습수업 주제는 ‘v-(으)면서’문법 교육이었다. ‘v-(으)면서’는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이나 상태를 동시에 겸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동사나 형용사에 받침이 있을 때는 ‘-으면서’ 받침이 없을 때나 ㄹ 받침일 때는 ‘-면서’를 사용한다.

수업은 2011년 7월24일 2교시에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전개되었다. 목표문법을 사용해서 말하는 장면을 PPT로 만들고, 목표문법과 문장을 색깔이 다르게 색칠을 해서 문장 카드를 만들어 제시했다. 개념 형성을 위해 틀린 문장 고쳐 쓰기, ㄷ, ㅂ, ㅅ, ㅎ 불규칙, 시제(과거, 현재, 미래)에 맞는 표현, 그리고 실제 대화까지 지도했다.

수업 평가에서 담당 교수님은 목표설정, 지도과정, 지도예문과 학습활동 구상 등이 창의적이고, 준비한 교수학습 자료가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며 국어문장과 문법지도에 적합하다

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나는 학습자를 지도하는 교실에서도 그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도해야 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은 내가 하고 싶어서 선택했고, 나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해 줄 수 있다고 확신했다. 또한 나와 다른 사람을 함께 행복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터를 닦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과 경비의 투자가 아깝지 않았다.

한국어 교원양성과정 이수증을 우편으로 수령했다. 나는 강의시청은 100%, 시험점수는 A 학점으로 이 과정을 이수했다. 이수증을 수령했을 때의 기쁨과 보람은 평생학습과정 후에 맛보는 또 하나의 신선한 감동이었다. 한국어교원양성과정에서 배운 교재는 항상 책상위에 놓고 수업의 이론적 배경이 필요할 때마다 펼쳐봤다. 한국어 어문규정의 내용, 거의 해마다 새롭게 등장하는 표준어와 비표준어의 구분, 음운 대치현상, 다문화 가족들의 한국어 발음 오류의 특징과 유형 등은 혼동하거나 어려워서 내용에 따라 확인과 공부를 해야 했다.

비 학위과정 평생학습은 다양한 연수를 포함했다. 나는 인생의 모든 단계가 '변화와 성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나의 서드 에이지는 61세 퇴직 이후 30년으로 설정했다. 성공적인 노화의 터를 닦는 시기이다. 젊은이 중심의 사회가 '나이 늙'을 '소퇴와 퇴행'으로 여기는 세태를 나는 완강하게 거부한다. 윌리엄 새들러가 주장한 '배움의 단계 first age'도 오늘날과 같은 정보 사회, 지식사회에서는 인생의 전 단계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간의 삶의 기간이 배움의 기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문화 한국어교육을 위한 자원봉사자 연수는 해마다 4시간 이상 빼놓지 않고 참여했다. A반과 B반으로 주제가 다른 경우가 많았는데 나는 양쪽의 연수 자료를 다 챙겨서 공부했다. 다문화 교육과 상담에 관련된 전문 도서도 시립도서관에서 대출받아 틈틈이 읽었다. 한국어 수업과 직접 관련이 적은 분야의 연수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전북도청과 호원대학교가 주관한 문화관광 리더(F-Tour Leader)양성 교육 300시간을 포함해서 상담교육, 숲해설교육, 전주 평생학습센터 강사교육, 은퇴설계 교육 등 퇴직 후 750여 시간의 연수를 이수했다. 이러한 연수 결과는 한국어수업 자료로 활용하기도 하고 생활 교양의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 **평생학습으로 익힌 한국어 수업 방법과 기술을 다문화교실에 적용**

2012년 2월, 전주시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자원봉사자선발 면접 시험일이었다. 대부분 30~40대인 수험생들의 시선이 나에게 와서 멈췄다. '저 늙은이가 빠져줬으면---' 하는 눈치였다. 온라인 강의 시청과 교육실습 과정이 머리를 스쳐갔다. 작은 힘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보태고 싶은 의욕과 충동이 일어났다. 젊은 경쟁자들의 눈총? 을 비켜서서 몇 번이고 망설이다가 면접실 문을 두드렸다. 며칠 후 전북에서는 최고령 합격자라는 영예? 도 함께 얻었다.

그 해부터 매주 토요일에 하루 4시간씩 결혼이주여성 학습자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평일에는 저마다의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나가기 때문에 토요일에만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남자 교사가 다문화여성 가정방문 지도하는 것을 대부분 꺼려하기도 했다.

한국어교육 자원봉사활동을 한 지 벌써 10년째다.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기 힘든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행복감이 해가 갈수록 부풀어지고 있다.

나는 '잘 배우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것' 이라는 말을 교육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그래서 '학교졸업은 있어도 학습졸업은 없다' 며 스스로 공부하는 즐거움을 놓지 않았다. 교원양성과정에서 배운 이론과 더불어 새롭게 개발되고 연구된 이론과 수업기술을 찾고 익히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다. 국립 국어원에서 발간한 교수학습자료에서 손을 떼지 않았고, 국내 우수한 대학에서 발간하는 한국어 교수학습자료와 교재를 인터넷으로 열람하여 가르치는데 참고하였다. 더러는 도서관이나 서점에 들러서 한국어교육 이론과 실제에 도움이 되는 신간 전문서적을 구입 또는 대출을 받아서 읽고 참고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았다.

한국어 교육이나 국어 교육 또는 외국어 교육은 언어교육의 범주에 포함돼서 서로 공통되는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필요한 이론과 내용, 방법과 기술을 선정, 다문화 한국어 학습에 적용하여 수업 효과를 높였다. 언어교육에서 기본이 되는 총체적 언어교육론, 외국어 교육의 기반이 되는 의사 소통교육 론, 과제학습과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 열린 교육에서 강조하는 협동학습과 개별화학습, 고공학습법 등 그 정신과 기술을 다문화한 국어 수업에 적용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힘내세요, 좋아지고 있어요' 등 칭찬과 격려 로 학습자들의 자존감과 성취의욕도 북돋워 주었다. 그들이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사진과 그림을 모아 맞춤형 교수·학습자료를 만들고 개인과 모둠 활동을 번갈아 가며 체험중심 언어교육을 실천했다. 사진과 도서는 물론 과일과 채소, 장난감과 의식주 생활용품 등 시청각 자료의 보따리를 싸 들고 다녔다. 우리 내외는 그걸 '행복 보따리' 라 불렀다. 두 눈을 둥그렇게 뜨고 프레젠테이션을 바라보며 간간하게 메모하고 따라 하는 그들의 모습에 나는 저절로 흥이 나고 힘이 솟았다. 그들이 한국어로 말하고 마음을 나누며 즐거워할 때 교육의 성과는 교사

의 열정과 실력의 함수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어휘는 의사소통의 기본이다. 나는 한국어 어휘 가운데서 오감으로도 설 명하기 어려운 어휘는 학습자의 모국어를 찾아서 그 나라 학습자들에게 설명해줬다. 그러한 어휘의 교수·학습활동은 다문화 학습자들에게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학습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데 매우 유효한 방법이었다.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의 절차와 순서를 고려하며 목표언어와 모국어의 대조방법도 한국어의 이해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었다.

학습자가 배운 어휘와 문법만 사용해서 새로운 어휘와 문장과 대화를 지도하는 것이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다. '짜증나다'는 '마음이 탐탁하지 않아서 역정이 나다' 라고 설명하면 더욱 어렵게 느껴진다. 그래서 중국인(크예이응)-베트남인(복보이, 암꾸애)-캄보디아인(캉, 크냐올)-에콰 도르인(스페인어-오르닷)-몽골인(야타르가-태) 등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빠르고 학습진도도 빨랐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더욱 흥미와 친근감을 가지고 학습에 참여했다. 모두 90회 차에 걸쳐 거의 350여개 어휘를 미리 사전을 찾아 조사하고 활용했다. 다문화 학습자의 모국어를 한국어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학습효과와 배우는 기쁨을 두 배로 늘이는 수업 활동임에 틀림없었다.

자원봉사 활동이건 정식 교사의 자리에서 강의를 하던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자는 학습자 모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금상첨화였다. 나는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 등 일상생활에서 상용하는 외국어를 나라마다 10여 개의 기본 문장과 20여 개 어휘를 골라 외우고 수업에 활용했다. 학습자들은 가끔 한국어 수업에 자기 나라 모국어를 곁들이는 나에게 호기심과 친근감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어교육 자원봉사활동 등은 자연스럽게 나에게 '배우고 가르치는 교실'이 되었다.

베트남인은 '땀이라는 소녀'를 '땀이 나는 소녀'로 즉 'ㄹ' → 'ㄴ'으로 발음하고, 일본인은 '얼마예요?' 를 '어르마 예요?' 즉 '얼'을 '어르' 로 발음했다. 이것은 기능적 조음장애 현상으로 교정이 필요했다. 낱말과 발음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한국어 음운체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먼저 구강모형, 개구도 등을 보고 올바른 조음점위치 기억하기, 입술과 혀의 모양 시범보기, 거울보고 따라 하기, 휴대폰으로 입모양과 목소리를 녹화 녹음하여 체크해보기, 문장과 발화에서 말해보기 등으로 지도하여 발음 교정과 정확한 발음 지도를 했다. 이로써 외국인의 한국어 발음이 바르지 못한 것은 적어도 한국어교실에서는 그들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한국어교사의 열정 부족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휴식시간 까지도 자기 목소리로 문장 읽기와 주요 어휘의 발음을 녹음하여 듣고 교정해 가는 코로나19로 인

해 대면학습을 할 수 없는 수업환경으로 바뀌었다. 온라인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면서 다문화한국어 온라인수업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아이러니하기도 했다.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침에 따라 지난 해 9월부터 한국어 온라인수업을 시작했다. 초등학교 정보화(IT)수업, EBS, 사이버대학, 무크(MOOC)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의 좋은 점을 벤치마킹했다. Webex와 Zoom 등 설치 사용 방법을 초 중등 학교 연수자료와 대학의 활동 내용을 인터넷으로 공부하여 나의 온라인 수업에 활용했다. 먼저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과 준비 등을 촘촘히 파악하여 준비하고 안내했다. 교재의 핵심요소를 요약, 재구성하고 Webex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쌍방향 온라인 수업방법을 적용하였다. 교수학습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학습자들의 학습방법을 수업 때마다 지도했다. 개별학습과 협동학습, 언어기능신장을 위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짓기)의 총 체적 통합적인 지도를 강화했다. 학습자들의 모습은 한국어 지도를 향한 의욕과 용기를 북돋워주었다.

온라인 학습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반응은 좋았으나 전체적인 참여율이 낮았다.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수업 참여방법을 모르고, 휴대폰은 영상이 작거나 불안정하고, 학습자의 컴퓨터 활용능력은 저조했기 때문이었다. 대면 기회가 없으니 안내도 시범 보이기도 할 수 없었다. 온라인 수업 내내 병어리 냉가슴 앓듯 딱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다.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의 교육과정에 온라인학습방향과 전략의 보완이 필요 할 것 같다.

### **다르지만 같이 행복을 꿈꾸는 다문화 이웃들**

나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인권과 행복의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나의 한국어 교육에 쏟은 재능과 열정이 '다르지만 함께 행복해 야할 다문화가족'의 삶의 밑거름이 된다면 얼마나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인가?

지지난 해 4월 초였다. 우리 부부는 4박5일 동안 '장강 삼협크루즈 관광'에 나섰다. 여행 마지막 날, 크루즈 여행 종착역인 '의창'에서 출발 한 고속열차는 봄 풍경을 가득 싣고 '충칭'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어떤 기차역에서 우리 좌석의 맞은편 빈자리에 낯선 여성 두 사람이 들어와 앉았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긋이 눈을 감고 있던 나는 깜짝 놀랐다. 누구란 말인가!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영겁결에 고개를 곧추세웠다. 지난 해 나의 반에서 한국어를 공부했던 '왕000'여성과 그의 친정 어머니였다. 그녀는 의창부근의 친정집을 다녀오는 길이었다.



참, 세상은 넓고도 좁았다. 우리는 기차길 4시간 반 동안 중국과 한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한국어와 중국어 통역사 역할을 한 딸이 대견스럽고 뿌듯했다. 일생에서 한 번 밖에 없을 여행에서의 동행이었다. 한국어 교육이 맺어준 인연이었다. 함께 한 회원들은 나를 부러워하며 '국제적인 인물' 이라고 치켜세웠다. 인간은 인연의 그물을 벗어날 수 없는 숙명적 존재라 했던가? 한국어 교실을 거쳐 간 열 두 나라 여성들과의 해후가 언제 어디서 또 있을지 은근히 기대되었다.

다문화결혼 이주여성이 학습자인 한국어교실은 한국말과 글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었다. 할아버지로서, 집안 어른과 심리상담사로서, 때로는 교통안내자 역할까지도 했다. 결혼이주 여성들은 어린 자녀들을 의례 한 둘 씩 데리고 왔다. 내가 그 어린 아이들을 손주처럼 껴안으면 그들은 가정에서 일어난 묻지도 않은 속내도 털어놓으며 다가왔다. 아이들이 내 바지통을 잡아당기고 책상 위로 기어오를 때도 교실을 웃음으로 채웠다.

어느 가을날 아침이었다. 베트남에서 온 여성학습자가 책상에 얼굴을 파 묻고 훌쩍훌쩍 울고 있었다. 깜짝 놀라서 사연을 물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를 돈 주고 사온 년이라고 하잖아요” 고부 갈등과 국제결혼제도의 몰이해에서 오는 오해 때문인 것 같았다. 학습자의 남편과 전화상담을 통해서 그 가족의 오해를 풀었다. 내가 심리상담지도사 자격과 다문화상담사 자격을 취득하면서 비 학위과정으로 익힌 상담기술과 공감요령이 이렇게 효과를 볼 줄은 몰랐다. 나는 한국어 학습자들을 마음으로 품어주고 아이들을 두 팔로 보듬어주었다. 학습자들과 그의 어린이들은 길만 같이 오가는 길동무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삶의 동행자였다. 나는 1인 다 역의 배우 같았지만 보람과 행복도 그만큼 컸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나이가 많으면 쫓아내기만 하고 받아주지 않는 제도가 있는 한, 각종 고용 조건에 나이제한 제도를 유지하는 한, 나이는 노후의 삶에 가장 큰 걸림돌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자원봉사는 건강과 활동 역량만 있으면 연령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내가 산수(傘壽)에 이르기까지 한국어교육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나의 존재 의미를 부여해주는 목표를 추구하면서 끈기 있게 참여한 한국어 교육 자원봉사활동은 큰 행운이었다.

### 평생학습은 꿈을 성취하는 삶의 자양분

교육의 성과는 교사의 실력과 열정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나는 잊지 않았다. 그것은

평생 동안 교직을 걸어왔던 나의 교육 경륜이 가져다 준 교훈이고 신념이었다. 한국어 교육에 참여한 것은 자원봉사활동자 신분이었지만 '나는 한국어교사'라는 긍지와 책임감을 한 시도 잊은 일이 없었다. 다문화 학습자들 앞에서는 한국의 민간외교관으로서, 한국문화사절로서, 한국의 모범 국민으로서, 한국 가정의 가장으로서, 활기찬 노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 한국어교실은 비록 제한된 공간이지만 국제사회의 축소판이었다. 나는 늘 나의 작은 모습이 세계무대에 섰다고 생각했다. 다문화교실에 설 때마다 나는 이 시의 의미를 되새기곤 했다.

《나 하나 꽃 피어/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결국 풀밭이 온통/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조동화의 시 '나하나 꽃피어'1련 )

한국어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며 품은 꿈은 이루어졌고 오랫동안 이어졌다. 비록 작은 꿈일지라도 그 열매는 언제 어디서 또 새싹을 틔지 모른다. 나는 이제 한국어 교육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또 하나의 과제를 해 결할 각오 앞에 서있다. 바로 외국인 발음지도의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실천한 결과를 소책자로 발간하는 일이다. 한국어 교사나 자원봉사자들에게 경험하고 연구한 내용을 전달하여 정확한 한국어 지도에 도움을 주고 싶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데도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나이 제한이 아니라 기대치에 이르지 못할 때를 기다리는 것은 과욕이다. 그러나 평생학습은 멈출 수 없다. 나의 버킷 리스트의 하나는 문학 취미활동이다.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조그만 문학 재능을 살려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나는 벌써부터 몇 가지 준비를 해오고 있다. 일 때문에 휴학했던 통신대 국어국문학과 3학년에 복학해서 체계적으로 문학공부를 할 것이다. 전국 문학관 답사 프로젝트도 70개 중 45개를 끝마쳤다. 시(시조)집 300권 읽기, 수필집 100권 읽기도 반절 이상 완수했다. 시와 수필 쓰기 및 공모전 응모하기도 계속하고 있다. 2023년 12월 결혼 금혼식날 문집을 세상에 내놓을 일을 생각하면 지금부터 가슴이 설렌다.

청춘은 인생의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나이라고 했다. 꿈이 없으면 20세도 노인이고 80세도 꿈이 있으면 청춘이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나 따듯한 창가에 앉을 수는 없다. 모든 인생은 준비한 것만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인생은 평생 학습으로 다지고 빛어진 꿈의 그릇이다. 앞으로도 평생학습으로 더 미덥고 튼실한 그릇을 만들어 갈 것이다.

한국어교육 10년 동안의 자원봉사활동, 이 일은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일이고, 준비된 활동이었다. 3개월의 평생교육과정을 공부한 힘으로 90개월의 한국어교육 자원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셈이다. 다문화가족 앞을 가로막은 언어의 벽을 허물고 그들에게 행복의 씨앗

을 심는다는 생각만 해 도 가슴이 뿌듯하다. 나는 지금도 한국어공부를 희망하는 모든 결혼 이주여 성들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며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한국어 교육 속으로 달려가고 있다. (끝)